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紀異篇의 書誌的 分析

Bibliographic Analysis on the 'Kii-pyon(紀異篇)' of 'Samguk-Yusa(三國遺事)',
for Exploring the National Identities of Koguryo(高句麗) and Kojoseon(古朝鮮)

김성수(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론 | 5. 마한條의 서지전거 |
| 2. 기이편의 편성 배경 및 체제 | 6. 고구려條의 서지전거 |
| 3. 고조선條의 서지전거 | 7. 결론 |
| 4. 위만조선條의 서지전거 | <참고문헌> |

< 초 록 >

근자에 중국은 <東北工程>과 관련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국내의 변방사(邊方史)로 왜곡·편입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고조선의 정체성(正體性) 확인을 위하여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 중 고조선부터 고구려까지 4개조(條)에 국한하여 그 전거(典據: 인용문헌)와 본문내용에 관하여 서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구려와 고조선은 우리민족의 근원(根源)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삼국유사』 기이편에서는 『魏書』·『古記』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사료들을 발굴하여 그 典據로 채록·제시됨으로써 우리민족의 기원과 관련한 建國神話를 歷史化하였으며, 그 神異스러운 건국신화에서 비롯된 고조선 → 위만조선 → 마한 → 고구려로 이어지는 유구한 韓民族 역사의 전통에 임각한 正體性을 확립하였다는데 그 위대성이 있다.

둘째, 기이편 고조선조의 제1의 전거인 『魏書』의 내용과 中國正史 『史記』·『前漢書』·『後漢書』·『三國志』·『魏志』 등에서의 해당부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위서』는 『삼국유사』를 집필할 당시까지 전해진 魏滿朝鮮에 관한 우리 국내의 역사서술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셋째, 위만조선조에서는 『前漢書』·『朝鮮傳』이 전거로 채택되면서 여기에 顏師古·李奇 등 『漢書』 주해(주석)자들의 견해를 細註에서 인용함으로써, 위만조선의 역사를 우리(한국)의 상고사(上古史)로 정립시켰음을 파악하였다.

넷째, 마한조에서는 『魏志』·『甄萱上太祖書』 등 무려 8개 이상의 다양한 전거들을 채택함으로써, 고구려 건국의 연원이 마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규명하여, 결국 고구려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조선에 연계시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바로 위와 같은 『삼국유사』 기이편을 간과 또는 외면하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편입시키며 <東北工程>을 구축하는 중국측 학계에 대하여 그 學者的 良心이 회복되기를 촉구한다.

요어 :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 고조선(古朝鮮), 위만조선(魏滿朝鮮),
마한(馬韓), 고구려(高句麗), 전거(典據), 『위서(魏書)』, 동북공정(東北工程).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04년 11월 29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Recently China has made a systematic, but preposterous attempt to distort historical accounts about Koguryo(高句麗) in order to integrate them into the history of the ancient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Kojoseon(古朝鮮) and Koguryo as the origin of Korea, by analyzing bibliographically texts and references cited in four sections on the period of Kojoson through Koguryo from 'Kii-pyon(紀異篇)' of 'Samguk-Yusa(三國遺事)'.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Kii-pyon' of 'Samguk-Yusa' the origin of Korean people and the foundation of their ancient nations were documented, based on various authoritative history books, including 'Wiseo(魏書)' and 'Kogi(古記)', and were well established the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Korean people rooted on the legacy of the nations, Kojosun through Koguryo.

Seco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ext of 'Wiseo' which was the first authoritative reference on the section of 'Kojoson' in 'Kii-pyon' with the appropriate texts of 'Sagi(史記)', 'Chonhanseo(前漢書)', 'Huhanseo(後漢書)', and 'Samgukj, Wiji(三國志·魏志)', it is suggested that 'Wiseo' could have well documented the history of Wiman-Chosun(魏滿朝鮮), known until the time of writing 'Samguk-Yusa'.

Third, in the section of 'Wiman-Chosun', by citing 'Chonhanseo. Chosunjon(前漢書·朝鮮傳)', and also citing opinions of such scholars as 'An Sago(顏師古)' and 'Yi Ki(李奇)' who had annotated 'Hanseo' in the notes, it is evidenced that the history of Wiman-Chosun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as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Fourth, it is found that, in the section of 'Mahan(馬韓)', by citing more than eight historical documents, including 'Wiji(魏志)' and 'Kyonhwonsang-Taejoso(甄萱上太祖書)', the origin of Koguryo was traced to Mahan, and therefore its historical identity could be linked to Kojoseon.

It is strongly demanded that Chinese scholars and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reconsider their unreasonable attempts to integrate the history of Koguryo into their history by ignoring such bibliographical and historical evidences as found in 'Kii-pyon' of 'Samguk-Yusa'.

KeyWords : 'Samguk-Yusa(三國遺事)', 'Kii-pyon(紀異篇)', Kojoseon(古朝鮮), Wiman-Chosun(魏滿朝鮮), Mahan(馬韓), Koguryo(高句麗), References(典據), 'Wiseo(魏書)', The Project of North-East(東北工程)

1. 서론

근자에 中國은 이른바 <東北工程>을 통하여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국내 邊方史로 편입시키고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古朝鮮에서 유래되어 三國(高句麗·百濟·新羅)으로 이어지는 韓民族의 유구한 문화와 각 왕조의 역사를 後代에 와서 임의적으로 날조·왜곡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一然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우리민족의 上古史에 대한 最古의 史書로서, 고조선의 건국신화¹⁾ 등을 비롯하여 魏滿朝鮮·마한·삼국의 역사 등을 차례로 서술함으로써 ‘홍익인간’의 기치 아래 건국된 우리민족의 원류와 주체성을 표방한 최초의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이른바 ‘怪力亂神’²⁾이라 하여 고조선을 비롯하여 한국 상고사에서 제외시켰던 여러 나라의 건국신화와 그 역사 및 각 왕조의 흥망성쇠들을 기이편에서 상세하게 수록하였다는 첫 번째의 특징이다.³⁾ 그리고 이 기이편에서 일연은 단군조선 등 각 국가별로 각 條를

-
- 1) 여기서 사용하는 ‘神話’라는 용어는 ‘역사적 실제(史實)을 美化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반의 민간신화(예컨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등)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반적인 건국신화는, 註 18)의 본문에 제시되는 「삼국유사」 기이편 ‘敍曰’의 내용과 같이, 중국의 건국신화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또한 신화의 歷史化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2) 괴이(怪異)·용력(勇力)·패란(悖亂)·귀신(鬼神)을 말함. 이는 「論語」述而篇에 “子不語怪力亂神”에서 나온 것으로, ‘괴력난신과 같은 非理는 바르지 않은 고로 고래로부터 성인들이 말하지 않았다’고 集注하고 있다.
 -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에서는 우리의 상고사에서 고조선을 비롯한 위만조선·마한·부여 등 삼국 이전 각 국가의 건국신화 등을 이른바 ‘괴력난신’이라 하여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삼국사기」本紀의 末尾라 할 수 있는 「삼국사기」卷第28, 百濟本紀 第義慈王條의 끝부분에 ‘論曰(저자의 평)’이라 하여, ‘신라의 옛기록(新羅古事)에는 “하늘이 금계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김씨로 성을 삼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괴이하여 믿을 수 없으나 내가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그 전설이 오래된 것이므로 그 말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는 등 김부식 등 儒學者들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괴이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古事마저도 「삼국사기」의 본문에 수록하는 것을 주저하였던 것이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김부식의 바로 위와 같은 思考에 입각하여 삭제되었던 고조선 등의

편성하고 그 본문을 각각 집필할 때, ‘각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서 채록한 것인가’에 대한 典據 즉 인용문헌을 반드시 제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각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는 두 번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조선條에서부터 위만조선·마한·고구려조에 이르기까지의 전거 및 본문의 내용을 각각 분석해 봄으로써 ‘고구려는 고조선 및 마한을 계승하였음을 서지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삼국유사 기이편의 가치는 진정 무엇이며 또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고조선을 계승한 진정한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국가이며 그 역사적 맥락은 高麗에 닿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2. 기이편의 편성 배경 및 체제

2.1 기이편의 편성배경

「삼국유사」 기이편의 편성 배경을 考究할 수 있는 단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기이편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叙日”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서문 등에서 일연이 기이편을 편성하면서 ‘天王·天子·東明聖帝·崩·殞落’ 등의 황제와 관련된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연의 자주적이고 민족주체성의 자각의식 등을 도출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일연은 이 기이편의 첫머리에 “서왈”이라 하여 일연 자신의 저술에 이 기이편을 특별하게 수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 기이편의 편성배경이라 볼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국신화 등 우리나라 상고사와 관련된 모든 역사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특별하게 紀異篇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저 옛날 성인은 禮樂으로써 나라를 세우고, 仁義로써 교화를 베풀 때에 怪力亂神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나려 할 때, 符命⁴⁾을 얻고 圖籙⁵⁾을 받는 등, 반드시 보통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뒤에라야 큰 변화(變)의 틈을 타서 大器⁶⁾를 잡아 大業⁷⁾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河水에서 그림이 나오고[河出圖] 洛水에서 글이 나오면서[洛出書] 성인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무지개가 神母⁸⁾의 몸을 둘러싸서 羲(伏羲)⁹⁾를 낳고, 용이 女登¹⁰⁾과 관계하여 炎¹¹⁾을 낳고, 皇娥가 궁상이라는 들에서 놀다가 자칭 白帝¹²⁾의 아들이라는 神童과 관계하여 少昊를 낳고, 簡狄¹³⁾이 알을 삼키고서 契¹⁴⁾을 낳고, 姜嫄¹⁵⁾은 거인의 발자취를 밟고서 棄를 낳았으며, 堯 임금의 어머니는 잉태한지 열 넉 달 만에 요를 낳았고, 沛公¹⁶⁾의 어머니는 용과 큰 못에서 교접하여 媧공을 낳기에 이르렀다. 이 뒤로도 이런 일이 많지만 여기서 모두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三國¹⁷⁾의 始祖가 모두 神異함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어찌 怪異하다고 할 수 있으랴! 이것이 바로 神異로운 바를 이 책의 첫머리에 신게 된 까닭이며, 그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¹⁸⁾

- 4) 하늘이 상서로움을 가지고 人君에게 내리는 명령. 즉 天子나 제왕이 되게 하는 하늘의 명령.
- 5)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한 기록.
- 6) 천자·제왕의 지위. 국가·권력 등을 의미
- 7) 제왕의 업.
- 8) 神異한 老母.
- 9) 중국 上古 때 제왕의 이름.
- 10) 炎帝神農氏(炎帝神農氏)의 어머니.
- 11) 고대의 제왕 神農氏. 火德으로 帝가 되었다 하여 炎帝라 한다
- 12) 五天帝의 하나. 오행으로는 金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하며, 방위로는 西方을 말한다.
- 13) 有娥氏의 장녀. 玄鳥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설을 낳았다고 함
- 14) 高帝氏의 아들. 禹임금을 도와 물을 다스려 공을 세우고, 商에 봉해져서 商나라의 始祖가 됨.
- 15) 上古 때 有郤氏의 딸.
- 16) 漢 高祖 劉邦.
- 17) 우리나라 高句麗·百濟·新羅를 의미함.
- 18) 一然, 「三國遺事」 紀異篇, 「叙曰」: 최남신, 「삼국유사」 (서울: 瑞文文化社, 1983), 33.
“叙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故河出圖, 洛出書, 而聖人之作. 以至虹堯神母而誕羲, 龍感女登而生炎, 皇娥遊窮桑之野, 有神童自稱白帝子, 交通而生少昊, 簡狄吞卵而生契, 姜嫄履跡而生棄, 孕胎十四月而生堯, 龍交大澤而生沛公. 自此而降, 豈可殫記. 然則三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次神異之所以漸諸[緒]篇也. 意在斯焉.”

라 하여, 중국의 모든 제왕이 일어날 때 하나같이 보통사람과 다른 괴이하고 신이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하면서,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삼국의 시조를 비롯한 고조선의 시조 또한 신비스러운 신화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하는 것이 조금도 괴이스러운 일이 아닌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연이 ‘중국 史書의 신화적 서술을 인용하면서 신이적 현상의 실재를 강조한 것은 신화의 역사화, 역사의 신화화¹⁹⁾를 企圖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목적에서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신화·설화 등을 채록·집필함으로써,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와 대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일연이 기이편을 집필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시발인 단군신화로부터 고조선이 시작되면서 그 건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이며, 동시에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고조선 건국의 신이한 이야기를 수록하게 되는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편을 편성하면서, 황제에 대한 사항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인 ‘天王·天子·天帝子²⁰⁾·○○帝²¹⁾·崩²²⁾·殂落²³⁾ 등의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조선조에서는 「고기」에 전거하여 단군신화의 내용 중에서 ‘桓雄天王’이라 표현하였고, 또 고구려조에서는 그 시조인 동명왕을 ‘東明聖帝·天帝子’라 기입하고 있으

19) 李鳳麟, “三國遺事의 象徵性 研究” 「三國遺事研究 上」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883), 189.

20) ①三國遺事, 紀異卷第一, 古朝鮮. “.... 古記云 是謂桓雄天王也.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②三國遺事, 紀異卷第一, 新羅始祖赫居世王. “..... 因名赫居世王, 今天子已降.”

21) 三國遺事, 紀異卷第一, 高句麗. “國史高麗本紀云, 始祖東明聖帝, 自言天帝子解慕漱, 我是天帝子.”

2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天子(황제)의 죽음은 ‘崩’, 제후의 죽음은 ‘薨’, 貴人의 죽음은 ‘卒’이라 표현하고 있다. 일연은, 신라의 탈해왕을 위시하여 미추왕·진지왕·선덕여왕·태종대왕·문무왕·경덕왕 등, 그리고 가락국의 거증왕 등 거의 모든 왕의 죽음에 대하여, 또한 王曆篇에서도 진성여왕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죽음에 하나같이 모두 ‘崩(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3) 三國遺事 紀異卷第二, 駕洛國記. “..... 以 獻帝立安四年 而 殂落.”

며, 삼국과 가락국 왕들의 죽음에 대하여도 각각 ‘崩’이라 記述하고 있고, 특히 가락국 수로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殂落’이라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입각한 일연의 의지 및 의도는, ‘이는 역대 한국의 다른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天子’라는 용어와 천자의 죽음을 일컫는 ‘崩’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중국의 종속이 아닌 자주민족의 역사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군주도 중국의 제왕과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²⁴⁾

위와 같이 「삼국유사」 기이편의 편성 배경에는, 일연은 당시 몽고에게 굴욕을 당하였던 13세기말의 시기에 바로 이와 같은 「삼국유사」를 집필함으로써 우리민족의 민족혼과 자주의식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기이편의 편성체제

「삼국유사」 기이편은 1)고조선, 2)위만조선(魏滿朝鮮), 3)마한, 4)이부(二付), 5)칠십이국, 6)낙랑국, 7)북대방, 8)남대방, 9)말갈·발해, 10)이서국, 11)오가야, 12)북부여, 13)동부여, 14)고구려, 15)변한(卞韓)·백제, 16)진한(辰韓), 17)우사절유택(又四節遊宅), 18)신라시조 혁거세왕, 19)이하 신라왕의 시대적 나열 등의 순서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이편의 편성체제 즉, 한국 상고사 중 삼국 이전의 배열순서의 원칙으로는 연대순과 내용상의 연계성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1)고조선 → 2)위만조선 순서의 서술은 시간적인 선후의 순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마한·4)이부·5)칠십이국·6)낙랑국의 순서는 朝鮮遺民 또는 조선의 땅과 관련하여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7)북대방·8)남대방이 서술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 2조는 6)의 낙랑국과 관련된 중국의 군현이라는 점에

24) 李載浩, “三國遺事に 나타난 民族自主意識 - 특히 그 體裁와 義例에 대하여 -,” 「三國遺事研究 上」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883), 6-10.

서 낙랑국의 다음에 수록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9)말갈 ·발해, 10)이서국, 11) 오가야는 기타의 국가를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12)북부여 ·13)동부여는 고구려와의 상호 관련 때문에 14)의 고구려 앞에 배열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다음에 있는 15)의 변한백제는, 백제의 시조가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14)의 고구려와 인접하여 놓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6)진한조는 ‘진한 ·신라’로 표기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18)의 신라 혁거세왕부터 신라의 역대 여러 왕들의 사항들이 배열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위 기이편에서 16)의 진한 다음에 17)‘우사절유택’이 삽입된 것은, 일연의 주된 관심이 국가의 영역문제보다 신라 전성시기의 戶口문제를 더욱 重視한 결과라고 판단된다.²⁵⁾

위와 같은 기이편의 편성체제를 요약하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기원에 관한 1)고조선과 2)위만조선의 문제에서는 그 시대순을 1차적으로 중요시하였고, 그 다음 3)마한 이후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르기까지의 편성에서는 조선유민 및 한반도의 땅과 관련하여 그 지역적인 문제와 인구의 문제를 2차적으로 중요시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이편의 편성체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그가 최고로 관심을 기울여 집중한 것은, 첫째로 우리 민족의 건국과 관련한 국가의 기원 문제를 ‘堯임금과 同時’라는 悠久性を 입증할 수 있는 ‘魏書’를 발굴하여 우리민족의 건국기원을 입증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연이 두 번째로 집중한 문제는 바로 조선의 땅과 그 땅에 거주하는 호구 즉 인구의 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위 기이편을 비롯하여 삼국유사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최대의 특징은, 고조선條를 비롯한 각 조 본문의 첫머리에는 그 본문의 서술을 위하여 채택한 典據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전거에서 채록된 내용을 삼국유

25) 정구복,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4. 참고

사의 본문으로 記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각 고조선·위만조선·마한·고구려조를 중심으로 하여 각조의 서지 전거 즉 인용문헌과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3. 고조선條의 서지전거

「삼국유사」 기이편 古朝鮮條의 본문에는, 먼저 「魏書」·「古記」·「裴矩傳」이 차례로 그 典據로 제시되어 각 문장의 첫머리에 記入되고 있고, 고조선조에서 네 번째로 제시된 「通典」은 「배구전」의 내용을 보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조선조에서 그 주된 전거는 「魏書」·「古記」·「배구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배구전」에서 채록된 내용에서는, 고려(고구려)와 箕子朝鮮 및 漢三郡을 언급하고, 다시 「통전」으로 이 내용을 보증하면서 漢四郡의 존재를 細註로 註釋하여 고조선조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제 이들 각각의 전거를 본문내용과 연결하여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3.1 「魏書」의 正體 및 그 眞僞

기이편 고조선조에서 첫 번째로 인용된 「위서」에서 채록된 내용은, “지금부터(「위서」가 집필된 년도)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開國하여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그 시기는 堯임금(즉위년: B.C.2357년)과 同時”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입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現傳하는 중국의 正史인 「三國志·魏志」 계열에는 단군왕검의 개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일연이 인용한 「魏書」는 허구의 역사서를 인용한 것인가? 아니면 일연은 逸失된 다른 「위서」 계열의 史書を 인용한 것인가?

앞의 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일연은 「삼국사기」에서 기피한 ‘괴력난신’에 관한 단군조선의 건국신화를 굳이 기이편의 첫머리에 놓으면서 손수 ‘叙曰’이라 하여, 기이편을 수록하는 長文의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을 보면, 위에서 인용된 「위서」가 현전하지 않는다 하여 허구라고 치부하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 「魏書」의 정체 및 그 진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위의 「위서」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을 볼 수 있다. 첫째로, 鄭寅普 이래 이 「위서」에 대하여 이른바 曹魏나 王沈의 「魏書」 계열로 보거나,²⁶⁾ 또는 최치원에게 인용되어 국내에 유입되어 있었던 北齊의 魏收가 편찬한 古本 「魏書」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²⁷⁾ 둘째로, 중국에서 ‘衛滿朝鮮’이라고 표기하는 위만조선에 대하여, 유독 「삼국유사」에서만 ‘魏滿朝鮮’으로 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것이 위만조선에서 편찬한 우리 국내의 史書라는 입장²⁸⁾에서의 이해이다.²⁹⁾

-
- 26) ① 이상호, “단군설화의 역사성(상),” 「력사과학」, 1962-3. : 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신화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1995), 18-24.
② 리지린, 「고조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4), 104.
③ 김병룡, “단군의 건국사실을 전한 「위서」에 대하여,” : 이형구 엮음, 「단군을 찾아서」 (서울: 살림터, 1994), 75.
④ 손영중, “고조선 3왕조의 시기구분에 대하여,” : 이형구 엮음, 「단군과 단군조선」 (서울: 살림터, 1999), 314.
- 27) ① 朴大天, “「三國遺事」 古朝鮮條 引用 「魏書」論,” 「韓國史研究」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1), 1-31.
② 윤내현은, 이밖에도 魏澹의 「魏史」, 楊素의 「魏書」, 張太素의 「後魏書」 등 여러 종류의 魏書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윤내현, 「고조선 연구」 (서울: 一志社, 1994), 310쪽의 註7) 참조.).
- 28) 丁仲煥, “三國遺事 奇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대하여,” 「大邱史學」 (대구사학회) 제12·13합집(1977).
- 29) 金成煥,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서울: 景仁文化社, 2002), 26-27.

<표 1> 고조선條의 전거 및 본문내용

* (*: 一然細註; 이하 표에서도 同一)

條	典據	내용	전거 비고	내용 비고			
古朝鮮 *王儉朝鮮	魏書	(1. 민족의 시조 단군) 2,000년전 단군왕 김開國, 도읍 아사달*1,*1-1, 국호 朝鮮, 건 국시기=高麗와 同時		「三國志·魏書」 에는 이 기사가 보이지 않음.			
	*經 *或云	*1: 阿斯達=무염산=백악=白州 *1-1: 開城 동쪽 즉 백악궁	「山海經」(中)	백악궁 =경기 도 장단지방의 고려궁전			
	古記	(2. 허느님인 환인의 아들 환웅) 환인*2, 지차아들 환웅, 환웅 天下 뜻, 인간세계 구 함, 환인 삼위태백 지목, 可容의인간. 환웅 天符印 받아 무리三千 거느리고 태백山頂 *3 神壇樹 아래에 하강, 神市라 지칭, 환웅 天王. 그는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정치 와 교화 베풀. (3. 곰과 범의 신화) 一熊一虎 환웅이 이 들에게 쫓겨나들 줄. 곰 이를 먹고21 일 문 여자가 됨(熊女). 환웅+웅녀 혼인 →아들 출 산, 號단군왕검. (4. 단군조선의 역사) 단군왕검 堯즉위0 년(庚寅)*4, 평양성 도읍*5, 稱조선. 도읍 '백악산 아사달'*6로 옮김. 1500년간 통치 周나라 武王이 기묘년(B.C.1122)에 箕子를 조선에 봉함, 단군 도읍을 장단경으로 옮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됨. 단군 1,908세.	「海東古記」, 「三韓古記」, ³⁰⁾ 「新羅古記」, 또는 일반용어 인지 不明	古記의 기록: 帝王韻紀」舊 三國史」本紀에 도 있음.			
					*2: 환인=제석(帝釋)		
					*3: 태백=지금의 묘향산		
					*4: 堯임금元年(戊辰) 후50년丁巳 年 庚寅 년, 확실여부의심		
					*5: 평양성 즉 西京		서경=(今)평양
					*6: 아사달=궁홀산(弓忽山)방 仿 홀산 금미달		궁홀산=구월산
	(唐)裴 矩傳	(5. 고구려와 四郡) 高(句麗)본래 고죽국 *7, 周나라가 이 땅에 기자를 봉하면서朝鮮 이라 함. 漢이 여기에 3군(현도 낙랑 대방 *8) 설치. *7: 고죽국=(今) 海州 *8: 대방=북대방					
			通典	통전의 내용: 「배구전 과 同*9	(唐) 杜佑 가 지작한 類書		
			*漢書	*9: 「한서」 진번·임둔·낙랑·현도의 四 郡 설치 기록. 「배구전」에서 '3군'으로 기록 명칭도 다름, 그 까닭은?		「배구전」과 漢 書의 내용 차 이 지적	

30) 「海東古記」와 「三韓古記」는 「삼국사기」의 편찬 때에 활용되었던 古記임.

위의 두 견해에서, 첫째의 견해는 ‘근 20종이나 되는 『위서』 계열 문헌³¹⁾을 의식하여 이를 중국 史書로 단정한 결과이며, 둘째의 견해는 『魏書』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 고대의 史書로 보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서지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3.1.1 고조선조 등의 수록내용의 분석

우선 고조선조의 첫머리에 수록된 내용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언은 『魏書』를 그 전거로 하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 그는 아사달에 도움을 세우고 개국하면서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이는 요임금과 동시의 일이다(乃往二千載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堯]同時).³²⁾

라 하여, ‘『위서』의 서술시기 2000년전에 단군왕검이 조선을 개국하였으며, 이는 요임금과 同時의 일이다’는 구절을 특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과 『삼국지·위지』의 저술년도와 관련하여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국 쑤나라의 陳壽(233-297)가 편찬한 『三國志·魏志』의 저술년도는 서기289년이므로, 이 시기의 2000년 전은 B.C.1711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삼국지』의 주된 내용인 北魏의 건국년도가 서기 386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의 2000년 전은 B.C.1614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년도는 요임금(B.C.2340)과 동시라고 하는 단군의 건국년도인 B.C.2333년과는 그 시기가 너무나 그 시대적 간격이 벌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³³⁾ 따라서 위 기이편 고조선조 본문의 첫머리에 제시된 『위서』는 『삼국지·위지』 계열에서 채택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31) 이형구, 『단국과 단군조선』 (서울: 살림터, 1999), 321.
32) 최남선, 『三國遺事』 (서울: 瑞文文化社, 1983), 33.
33) 그밖에 고조선의 건국년대 및 堯의 건국년대에 대한 고고학적인 유물출토에 의한 접근방법에 근거한 연구 등(윤대현(1993), 311-317. 참고도 없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기존 사학계에서 일반화된 고조선의 건국년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논술한다.

둘째로, 위의 「魏書」를 위만조선의 역사서로 본다면, 위만조선의 개국년도인 B.C.194년의 2000년 전은 약 B.C.2200년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년대는 현재 단군왕검의 건국년도로 추정하는 'B.C.2333년'³⁴⁾에 상당히 근접하는 결과를 보인다. 필자는 '原文書誌學의 연구에서는 그 어떤 추론보다 原典의 내용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의 原文을 더욱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연은 위만조선조에서 '위만'이라는 人名을 "魏滿"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일연은 위만조선조와 마한조에서,

- 1) 위만조선조의 제목 : "魏滿朝鮮"이라 표기,
- 2) 위만조선조의 내용 속에서 위만의 성명 : "魏滿"이라 記入,
- 3) 마한조의 내용 속 : "魏志云, 魏滿擊朝鮮, 開國號馬韓"이라 서술³⁵⁾

하고 있음 주목된다. 위와 같은 내용과 中國正史 24史 중 前四史의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4史 중 最古의 史書이며 漢 武帝(B.C.141-B.C.88) 때 司馬遷이 저술한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에서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度涇水, 居秦故空地上下障, 都王儉³⁶⁾

- 34)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단군건국의 紀年은 13세기말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요임금 즉위50년 戊辰"을 따라 계산한 것이다(현명호, "고조선의 성립과 수도 문제에 대하여", 「단군과 단군조선」 (서울: 살림터, 1995), 88-89.). 그러나 요임금의 건국년대는 B.C.2357년이기 때문에 그 즉위 후 50년은 B.C.2307년이 되어야 한다. 이는 너무 늦은 년대가 된다. 그래서인지 이승휴는 단군의 건국년대를 요임금 즉위25년으로 보고, B.C.2333년을 원년으로 삼은 것이다
- 35) 필자는, 위 본문에서 위만조선의 국가명(魏滿朝鮮)과 위만의 인명(魏滿), 그리고 마한조에서의 전거문헌(魏志) 및 위만의 인명(魏滿)에서 모두 '魏'라고 표기한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 36)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이라 하여, 위만의 姓名 중 그 姓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滿’이라는 이름(名)만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4史 중 두 번째의 史書인 班固(A.D.32-92)의 「漢書」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第65에,

朝鮮王滿, 燕人. ...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椎結蠻夷服而東走出塞, 度淇水, 居秦故空地上下障, 都王儉³⁷⁾

이라 하여, 위만의 성명 중 그 성(姓)은 또한 기입하지 못한 채, 다만 그 이름(名)인 ‘滿’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위의 두 인용문의 내용으로 보아, 「한서」의 서술은 「사기」를 답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4史 중 세 번째 사서인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第7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 而燕人衛滿擊破準, 而自王朝鮮, 傳國至孫右渠, 元朔元年, 濊君南閭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 至元封三年, 滅朝鮮, 分置樂浪·臨屯·玄菟·眞番四郡³⁸⁾

라 하여, 비로소 여기서 처음으로 ‘衛滿’이라는 온전한 성명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 最古의 史書인 「史記」와 「漢書」에는 만이라는 이름만 記入되었다가, 「後漢書」에 와서야 비로소 ‘衛滿’이라는 성명이 모두 보인다.³⁹⁾

위와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典據로 제시한 “「魏書」” 및 고조선조·마한조에서 “魏滿”이라고 각각 표기한 것을 특히 주목하여 볼 때, 「삼국유사」에서 전거로 채택된 「위서」는 중국의 「三國志·魏志」 계열이 아닌 제3의 史書를 인용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반고가 「한서」를 집필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 기술

37) 「漢書」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第65.

주지하다시피 「한서」는, 班固(A.D.32-92)가 그의 아버지인 班彪가 세상을 떠난 서기54년 직후에 집필에 착수한 것이다.

38) 「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39) 尹順, “「三國遺事」의 桓雄과 炎帝神農의 기록학적 비교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2호(2001. 9), 74-75.

된 史書인 「사기」의 내용을 충실하게 답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後代의 史書는 그 이전 시대의 사서를 참고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며, 또한 특정한 역사적 사실은 그 시대와 가장 근접한 史書에 입각하여 관련 史實을 파악하는 것이 역사 규명의 定準 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기」·「한서」·「후한서」에서 서술되지도 않은 단군왕검에 관한 내용이 거의 26세기를 지나서 서술된 「삼국지·위지」 계열에서, 그것도 중국의 漢族의 역사가 아닌 異民族이며 외국의 역사 중에서 단군왕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굳이 새롭게 발굴하여, 이를 「삼국지·위지」 계열에 와서야 처음으로 서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 논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24史 중 前四史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 및 관련 書名이 아니면서, 일연이 고조선조에 그 전거로 내세운 “「魏書」에서 단군왕검을 기입하고 있음을 보면, 이 “「魏書」”라는 史書가 중국사서가 아닌 바로 우리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기 「사기」에서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할 때의 모습은 “퇴결이만복(魃結蠻夷服)” 형상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⁴⁰⁾ 이에 대하여, 이병도는 「삼국유사」 위만조선조의 역주에서,

‘퇴결’은 상투, ‘만이복’은 조선의복을 말하는 것이니 滿이 天餘人의 무리와 함께 입국할 때에 조선식의 머리장식(首飾)과 의복을 입고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만이 순수한 漢人계통의 燕人이 아니라, 遼東 토착의 조선인 계통의 燕人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된다.⁴¹⁾

라고 하였다. 이 인용문에 의하면, 위만은 조선사람으로 비록 燕나라 조정에 서 벼슬을 하기는 했지만 고국의 생활풍습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단군조선을 계승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만은 고국의 복색으로 돌아왔고, 나라이름(國號)도 또한 “朝鮮”이라 칭했을 것이다. 그리고 귀국 후 ‘魏’로 冠姓하거나 改姓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⁴²⁾

위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면,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조에서 일연이 인용

40) 註 35)·36)의 본문 참조.

41) 李丙燾 譯註, 「譯註 三國遺事 并原文」(서울: 廣曹出版社, 1977), 181.

42) 윤순(2001.9), 74-75.

한 “魏書”는 위만조선을 세우고 쓴 역사서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기」·「한서」에서는 위만에 대하여 그 姓을 기입하지도 못하였다가 「후한서」에 와서야 비로소 그 姓名을 온전하게 쓴 상황을 감안하면, 「삼국유사」를 집필할 때 일연이 유독 “魏滿”이라고 표기하거나 “魏滿朝鮮”이라고 기입한 까닭을 논증할 그 어떤 이유나 논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연이 고조선조의 전거문헌(魏書)과 국가명(魏滿朝鮮) 및 인명(魏滿) 모두와, 마한조에 제시된 전거(魏志)와 국가명(魏滿朝鮮) 그 전체를 誤字로 표기할 정도로 잘못 記入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연이 고조선조에서 “魏書”라는 인용문헌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본문의 서두로 채택한 것은 우리 조선역사의 유구함을 자부하는 것이며, 위만조선이 이같이 오랜 역사의 단군조선을 계승한다는 전통성을 밝히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魏書”는 「삼국유사」를 집필할 당시까지 일연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전거로 채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³⁾

결과적으로, 이상의 여러 관점들을 종합해 보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첫머리에 인용문헌으로 제시된 “魏書”는 바로 「삼국유사」를 집필할 당시까지 일연에게 전해진 위만조선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3.1.2 기이편 서지전거의 「魏書」·「魏志」와 「三國志·魏志」의 문제

일연이 「삼국유사」 기이편을 편찬할 때, 그 전거로 내세운 書名 중에는 “魏書”와 “魏志”와 같은 類似한 서명이 나타나고 있다. 본 목에서는 이와 같은 서명들과 中國正史 중 魏나라의 史書인 이른바 「三國志·魏志」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위의 목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고조선 단군왕검의 존재와 그 개국연대에

43) 위 본문의 상세한 내용은 (윤순(2001.9), 75.) 참조 요. 아니면 그 逸文이 다른 서적에 轉載되어 있는 것을 일연이 접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한 사실은, 중국의 진수가 289년에 편찬한 「삼국지·위지」 계열에는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또한, <표 3>의 본문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이편 馬韓조의 첫머리에 “魏志云”이라 하여, ‘魏滿이 조선을 공격하자, 조선왕 準은 휘하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남하하여 韓의 땅에 도착하고 개국하여 국호를 馬韓이라 칭하였다(魏志云. 魏滿擊朝鮮, 王準率宮人左右, 越海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⁴⁴⁾이라는 마한의 개국과정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 일연이 이 부분에서 그 전거로 내세운 “魏志”와 그 본문내용을 中國正史인 「삼국지·위지」의 내용 속에서 그 관련사항을 검색하여 보면, 「三國志」 卷三十,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에

準既僭號 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⁴⁵⁾

이라 하여, 중국인(진수)의 관점에서 본 마한의 개국과정을 일연이 서술한 기이편 마한조에서 마한의 개국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문맥의 전개상으로 동일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일연이 마한조에서 전거로 채택한 “魏志”는 바로 중국의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즉 「삼국지·위지동이전」을 일컬어서 “魏志”라고 표기하였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고조선조 서두의 내용은 이 “魏志”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보면, 일연이 고조선조의 첫머리에 전거로 채택한 “魏書”는 분명 24史 「삼국지·위지」와 분명 차별이 있는 서로 다른 서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연이 고조선조의 첫머리에 제시한 “魏書”는 魏滿朝鮮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

요컨대, 이상과 같이 기이편 고조선조의 전거문헌(魏書)과 위만조선의 국가명(魏滿朝鮮) 및 위만의 인명(魏滿) 모두와 마한조에 제시된 전거(魏志) 등을 24史 중 前4史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연이 고조선조에서 채택한 전거인 “魏書”는 위만조선(魏滿朝鮮)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하겠다.

44) 최남선, 「삼국유사」, 36.

45) 「三國志」 卷三十,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3.2 「古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연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제시한 전거는 「古記」이다.⁴⁶⁾ 이 「고기」에 대하여,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이 「고기」를 「舊三國史」⁴⁷⁾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⁴⁸⁾ 두 번째는 이 둘을 서로 별개로 보는 견해⁴⁹⁾이다.⁵⁰⁾ 특히 金貞培는, “南九萬(1629-1711)이 쓴 「東史辨證」에서 「舊史」의 「檀君記」에 인용되었다고 하는 단군의 건국사실이 「三韓古記」에서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를 「삼한고기」와 관련지어 이해⁵¹⁾하고 있다. 또한 金杜珍은 이 「고기」를 넓은 의미에서의 「檀君古記」로 이해하고 있다.⁵²⁾ 河廷龍은 ‘이 「고기」가 「삼

46) <표 1>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연은 이 「고기」에서, 1)제석천이자 하느님인 환인의 존재를 부각하고, 그 아들인 환웅이 인간세계를 구하는 내용과 홍익인간의 개념, 그리고 환웅이 天符印을 받아 무리를 거느리고 太白山頂 神壇樹 아래에 하강하여,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정치와 교화를 베푸는 내용, 2)곰과 범의 신화에서, 곰이 쫓과 마늘을 먹고 21일 동안 큰하여 여자(熊女)가 되는 장면과,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여 단군왕검이 출생하는 광경, 3)단군조선의 역사서술로서, 단군왕검이 堯 즉위 50년(庚寅)에 개국하여 평양성에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으며, 도읍을 ‘아사달’로 옮기며, 1500년간 통치한 사실 그리고 周 武王이 B.C.1122년에 箕子를 조선에 봉할 때, 단군은 도읍을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으며, 단군의 나이가 1,908세였다는 사실 등을 밝히고 있다.

47) 「舊三國史」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역사서이다. 지금은 망실되어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백제 박사 고흥에 의하여 편찬된 「書記」(375)와, 신라의 거칠부가 편찬한 「國史」(545), 고구려의 이문진이 편찬한 「新集5권」(600) 등의 여러 한국고대사 관계 역사서들을 기초로 하여 편찬된 韓國史書로 볼 수 있다.

48) 김영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 『역사과학』 2; 정구복, “高麗 初期의 「三國史」 編纂에 대한 一考”, 『國史館論叢』(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3).

49) ①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韓國上古史의 諸問題』(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② 이강래, “삼국유사」 인용 「고기」의 성격”, 『三國史記典據論』(서울: 민족사, 1996).

50) 金成煥(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30.

51)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韓國上古史의 諸問題』(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52) 김두진, “檀君古記의 이해 방향”, 『韓國 古代의 건국신화와 祭儀』(서울: 일조각, 1999).

국사기」의 그것과는 달리 국가의 신화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과 불교적인 설화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건국설화와 불교연기설화를 전하는 두 권 이상의 편목으로 구성된 단일한 특정 書目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⁵³⁾

위와 같은 세 가지의 견해에 관하여, 삼국유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古記」의 모든 내용들을 섭렵해서 종합적으로 추론해 보아도, 이 「고기」가 과연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 분명하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⁵⁴⁾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 「고기」에 대하여 ‘고조선과 부여 및 고구려의 건국신화 등이 수록된 古記錄’의 개념으로서의 범칭으로만 사용하고자 한다.

여하튼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이 「古記」의 전거를 통하여, 1)환인과 환웅의 존재 및 홍익인간의 개념, 2)곰과 호랑이의 신화 및 단군왕검의 출생, 3)단군조선의 역사를 채록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와 단군조선의 역사를 正史적인 사실로써 역사서에 최초로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3.3 「表矩傳」 및 「通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연은 고조선조에서 세 번째로 「배구전」을 인용문헌으로 제시하면서 지금의 황해도 海州에 위치하였던 孤竹國이 바로 고려[고구려]였음을 밝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周나라가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음과, 한나라가 이 지역에 漢三郡 내지는 「통전」에서 漢四郡을 설치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연이 고조선조에서 고구려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바로 고구려가 고조선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3) 하정용, “「삼국유사」 所引 「古記」考,” 『書誌學報』 제 23집 (1999). 33-54.

54) 이 문제는 그 논증을 위한 추론마저 쉽지 않을 정도로 관련자료 및 역사학계의 연구 또한 부족한 편이다. 서지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향후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조선조 두 번째의 전거인 「고기」에서, 주 武王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을 때, 이에 단군은 도읍을 ‘아사달’에서 ‘장당경’으로 옮기면서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실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리하여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정통은 ‘고조선’조 다음에 서술되는 ‘위만조선’조로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연은, 기자조선에 관한 사항은 우리의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연은 고조선조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魏書」·「古記」 및 「배구전」·「통전」을 인용문헌으로 차례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上古史의 변천에 대하여 ‘고조선 → 위만조선 → 고구려로 계승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고조선조에서 그 전거로 제시한 「魏書」·「古記」·「배구전」·「통전」의 순서로 그 인용문헌을 제시함으로써,

첫째, 「魏書」를 전거로 내세워,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칭한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한국 上古史에 있어서 「삼국사기」에서 설화 내지 신화라고 치부하여 기술하지도 않은 고조선의 역사를 역사적 사실로서 史書에 최초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한국사에 있어서 ‘민족사의 자주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였다’⁵⁵⁾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魏書」는 중국의 史書가 아니고 魏滿朝鮮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의 歷史書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을 논증하였다. 그리하여 이 “魏書”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당시 까지 전해진 위만조선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규명하였다.

둘째, 고조선조에서는 이 「고기」를 전거로 내세워, 단군신화를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정립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고조선의 도읍이 ‘평양성 → 아사달 → 장당경’의 차례로 옮겨진 사실과, 기자조선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에 편입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⁵⁶⁾

55) 박진태 등,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서울: 박이정, 2002), 93.

56) 위와 같이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의 영토 및 도읍에 관한 개념은 평양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정도전 등 李氏朝鮮을 개국한 주축세력들은 새나라의 이름(國號)을 ‘朝鮮’이라고

셋째, 고조선조에서는 「배구전」과 「통전」을 전거로 내세워, 고구려의 존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를 고조선조에서 기술함으로써 고구려가 고조선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魏滿朝鮮條의 서지전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이편의 ‘위만조선’조에는 그 제목이 “魏滿朝鮮”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 위만조선조의 典據로는 「(前)漢書·朝鮮傳」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본문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연의 細註로는 唐初 「한서」의 註解者인 顏師古의 서술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서」의 註釋者인 李奇 등의 말을 각각 일회씩 인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연이 기이편 위만조선조의 본문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그 전거로써 「전한서·조선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려시대까지 위만조선 등 우리민족의 上古史에 관한 우리 자체의 역사서술이 부족하였던 데에서 기인한 듯하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의 서술에 있어서도 고구려·백

정한 후,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요동정벌을 계획한 바 있다. 그리고 신채호를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민족사학자들은, 고조선이 용동지역을 무대로 발전하였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신채호는 우리민족 중의 하나인 扶餘族을 주목하고, ‘그 자손이 점차 번성함에, 그 一派는 요동과 만주의 각지에 분포하고, 다른 일파는 조선 및 삼한 각지에 분포하여 우리 민족 발달의 제1기를 이루었다(신채호, 『조선상고문화사』(서울: 형설출판사, 1998), 23)’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고조선을 총괄적으로 연구한 윤내현은 『고조선연구』에서 “제3장 고조선의 강역과 국경” 편에서 『史記』의 「秦始皇本紀」·「朝鮮列傳」 등에 의거하여, 고조선의 서부국경은 발해만에 있는 갈석산(碣石山)에서부터 현재의 北京의 북쪽에서 남동방향으로 흘러내리면서 발해만으로 들어가는 란하(纒河)강 흐름의 역방향 즉 갈석산에서 북서쪽의 란하강의 줄기를 그 국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동쪽의 국경은 흑룡강 유역에 이르렀음을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조선의 강역과 국경은 한반도와 만주지역 전체에 이르고 있음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있다(윤내현, 『고조선연구』(서울: 일지사, 1994), 170-306). 이와 같은 고조선의 강역 및 영토의 문제에 관한 상세한 서지적 연구는, 제목을 달리하는 후속연구로 미루어 보완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상세한 사항은 생략함.

제·신라의 서술에 국한하였고, 고조선의 역사는 물론이려니와 삼국 이전의 우리 민족사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만조선조의 내용에 관한 특징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魏滿朝鮮의 전거 및 본문내용

條	전거	내용	전거 비고	내용 비고
魏滿朝鮮	前漢書朝鮮傳	(1. 연나라의 침략) 중국이 燕代 처음으로 진번·조선을 빼앗음 *1관리를 두고 요새 쌓음. 秦이 燕을 멸하고, 진번·조선을 요동 변경에 소속시킴. 漢건국후, 이 땅이 멀어 패수까지 경계삼아 *2. 연나라에 소속시킴. (2. 위만조선의 건국) 燕人 위만(魏滿)에 망명하여 패수를 건너와 진번·조선·故燕 齊의 망명자들을 복속시키고 임금되어 왕경에 도읍. *3. 진번·임둔의 항복, 위만조선 영토 수천리. 왕위: 위만→아들→손자 우거. (3. 중국과 충돌) 진번·진국이 漢과 교류 시도. 우거*4가 제지. 원봉2년(B.C.109)에 漢은 섭하를 시켜 우거 달랠, 우거 거부. 섭하 귀국시 패수에서 그를 호송하던 조선 裨王(將帥) 長*6을 죽이고, 패수를 건너 도망하여 본국에 보고함. (4. 漢 양복·순체의 침략) 천자가 섭하를 요동도위부로 임명, 朝鮮이 습격하여 섭하를 살해. 천자 누선장군 양복을 보내어 齊에서 군사 5만으로 발해를 건너옴. 좌장군 순체 군리 7천으로 먼저 왕경에 침입, 우거가 물러나 침. 양복 군사 잃고 산중으로 도망. 좌장군도 공격실패, 천자는 위산을 시켜 우거를 달랠 전쟁 지속, 끝내 왕경성은 불함락. (5. 내란으로 위만조선 무너짐) 오랜 전쟁 중 천자 제남태수 공손수에게 조선을 치게함, 조선의 梟 노인 등이 *7 항복코저 하였으나 왕이 거부. 원봉 3년 (B.C.108) 여름에 왕 우거가 살해되었으나 왕경성은 불함락, 우거의 大臣 成己도 모살됨, 결국 조선 함락. 진번 임둔·낙랑·현도 4군을 설치.		위만: 「漢書」에는 姓이 없으며 이 다만 「魏略」에 漢으로만 썼음. 「魏略」에 漢 서 비로소 漢으로 썼음.
	*師古曰	*1: 戰國時(燕이) 이 땅을 처음으로 빼앗아 얻었음	顏師古: 唐初「漢書」의 註解者	
	*師古曰	*2: 溟水는 낙랑군에 위치	顏師古	
	*李曰	*3: 도읍 王儉은 地名	李奇: 「漢書」의 註釋者	
	*臣瓚曰	*3-1: 王儉城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위치.	臣瓚: ?	
	*師古曰	*4: 우거: 위만 孫子 이름	顏師古	
	*師古曰	*5: 辰은 辰韓	안사고	
	*師古曰	*6: 裨王 長은 호송하던 장수의 名임	안사고	涉何의 前將軍
*師古曰	*7: 尼谿: 地名, 나머지는 인명.	안사고		

첫째, 일연은 위만조선조의 역사서술의 분량에 있어서 고조선조의 서술보다 약 47%나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연은 위만조선조의 내용서술에 있어서, 1)燕나라의 침략, 2)위만조선의 건국, 3)漢과의 충돌, 4)漢나라의 침략, 5)위만조선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위만조선의 흥망성쇠에 대한 일련의 始末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둘째, 위만조선조의 내용서술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앞의 절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일연은 이 위만조선의 국명을 “魏滿朝鮮”이라고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건국자인 위만의 인명 표기에 있어서도 “魏滿”이라고 표기한 것이 그 특징이라 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24史의 최초의 史書인 「사기」를 비롯하여 「한서」에서 ‘위만’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그 인명의 姓마저 기입하지도 못하였다가, 「후한서」에 와서야 비로소 위만의 姓名을 온전하게 쓴 사항에 반하여,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때 유독 “魏滿”이라고 표기하거나 “魏滿朝鮮”이라고 기입한 데에는 특별한 연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당시 참고하였던 여러 자료에서 위만의 姓(“魏”) 및 “魏滿朝鮮”라고 명백하게 記入하는 데에 있어서 명백한 確信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대부분 항목의 서술에 있어서, 그 전거를 먼저 제시하면서 삼국유사의 본문을 집필하여 나가는 일연의 역사서술에 대한 確고한 의식과 명철한 역사의식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魏滿”과 같은 단어의 표기에 대하여 誤字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아무런 단서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일연이 「삼국유사」의 기이편을 집필할 때 어떤 특정한 事案에 대하여 ‘異說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또한 반드시 附記해 놓았거나 註釋을 붙여 놓고 있음⁵⁷⁾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일연이 人名과 國家名 등의 기입에 있어서 誤記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確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7) 정구복,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9.

셋째, 일연은 위만조선조의 서술에 있어서 비록 그 전거를 「前漢書·朝鮮傳」 하나에만 의존하였지만, 그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는 顏師古 등의 「한서·주해서」 등을 무려 여덟 차례나 인용함으로써, 後代 唐初 시기까지 연구된 「전한서·조선전」의 관련 史料들을 충실하게 참고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세 번째 특징이라 하겠다.

요컨대, 일연은 한국 상고사의 時代史의 인 관점에 있어서, 위만조선은 고조선의 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한條의 서지전거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마한은 세 번째 條로 편입되고 있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이편 마한조의 본문에는 1)「魏志」, 2)「甄萱上太祖書」, 3)崔致遠云, 4)「周禮」(職方氏), 5)「三國史(記)」, 6)或云 7)或 8)「淮南子注」, 9)「論語正義」, 10)「海東安弘記」의 순서로 무려 열 개의 전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1)·4)·9)의 3종은 중국의 문헌이며, 2)·5)·10)의 3종은 한국의 문헌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3)의 「崔致遠云」은 최치원의 어떤 저서 또는 문헌인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⁵⁸⁾

그밖에 마한조의 본문에서 「최치원운」에 대하여 일연은 직접 細註를 가하면서,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를 준거로 하여 신라와 고구려의 건국년대를 각각 규명하고 있으며, 일연 당시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마한이라고 한 유래를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마한조에서는 총 8종의 전거를 제시하면서 그 본문을 서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연은 마한조에서 「魏志」라는 전거문헌을 들며 마한의 건국 사항을 설명하고 난 뒤, 곧바로 “崔致遠云”이라 하여 최치원의 문헌(저술)을

58) 또한 6)·7)은 아마도 전거를 굳이 제시할 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 문헌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연은 굳이 그 전거를 꼭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인용하면서 “마한은 고구려요, 진한은 신라이며, 四夷는”⁵⁹⁾라 하여, 고구려는 바로 마한을 계승하였으며 또한 신라는 진한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삼국의 진승에 있어서 그 연원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일연은 우리 선대의 저술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傳統性을 확립하려는 우리역사의 저술에 대한 主體的인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마한條의 전거 및 본문내용

條	전거	내용	전거 비고	내용 비고
馬韓	魏志	(1. 마한의 건국) 魏蕪이 (고)조선을 침. (고)조선왕 準이 바다를 건너 남하, 韓 땅에 이르러 마한 개국.	「三國志」 魏志 東夷傳	
	甄萱上太祖書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혁거세 신라가 일어나자, 백제가 금마산에서 국가 창건		
	崔致遠云	마한=고구려, 진한=신라*1, *2, 四夷=九夷·九韓·穢·貊	최치원 저 서명 不明	
	*本紀	*1: 신라가 먼저 甲申년에 일어남, 고구려는 甲申년에 일어남 (고조선 왕 준을 말함), 동명왕이 일어날 때 마한을 병합하였음을 의미. 그래서 고구려를 마한이라 일컬음.	「삼국사기」 本紀	동명왕 =고구려의 시조왕
	*今人 或(云)	*2: 금마산을 두고 마한이 백제가 되었다는 것은 착오. 고구려 땅에 (마)읍산이 있었기에 마한이라 함.		邑山: 馬邑山の 缺字
	周禮(職方氏)	東夷족 九夷가 四夷와 九貊을 주관하였음	周 관제 기록서	
	三國史	(2. 東夷의 여러 나라) 명주 甌脫 예국, 농부가 밭에서 예왕의 인장을 얻어 나라에 바침. 춘주=古우수주=古맥국	「삼국사기」	명주=속강릉
	或云	(속)삭주=맥국, 평양성=맥		삭주=평북 삭주 지방
	淮南子注	동이족=9종족	漢나라 劉 安 저술	
	論語正義	九夷=현도·낙랑·고려(고구려)·만식·부유·소가·동도·왜인·친비		
海東安弘記	九韓=일본·중화·오월·탁라·응유·말갈·丹國·여진·예맥.			

59) 최남선, 「增補 三國遺事」(서울: 瑞文文化社, 1983), 36.

위와 같은 마한조 본문의 서술에서, 일연은 ‘위만의 침략이 있자 고조선의 왕 準은 바다를 건너 南下한 후 韓의 땅에 이르러 마한을 건국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마한을 고조선의 지역 이동적인 연계선상에서 마한의 正體를 파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연은, 고구려 건국의 연원이 마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결국 고구려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조선에 연계시키는 논리를 확립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6. 고구려條의 서지전거

<표 4>·<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 조 앞에는 ‘북부여’와 ‘동부여’가 먼저 서술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북부여·동부여는 고구려의 前身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고구려조와 함께 논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선 이 세 나라에 관한 전거를 본문내용과 연결하여, <표 4>·<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항을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부여조에서는 우리 上古史의 문헌인 「古記」를 전거로 하여,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과, 고구려가 졸본부여를 바탕으로 건국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둘째, 동부여조에서는 그 어떤 전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문이 바로 시작되면서, 동부여의 건국신화와 금와(金蛙)왕의 전설이 서술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 전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일연이 북부여와 연계된 서술로써의 동부여를 계속하여 記述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라는 전거의 제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표 4>에서 보듯, 북부여조의 첫째 문단에서 天帝 해모수의 하강과 북부여의 건국 및 그 아들인 해부루왕의 동부여로 도읍을 옮긴 사항이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북부여 條에 이어지는 동부여조에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가섭원’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그 국호를

<표 4> 북부여·동부여·고구려의 전거 및 본문내용

條	전거	내용	전거 비고	내용 비고
北夫餘	古記	(1. 天帝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 B.C.58년 4월 8일에 천제가 홀승골성 *1에 하강하여 五龍臺에 탑. 도읍을 세우고 왕을 칭함.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스로 해모수라 함. 아들 扶婁를 낳고 姓을 解로 삼음. 해부루는 上帝의 명령으로 동부여로 도읍을 옮김. (2. 고구려 졸본부여에서 일어남) 동명제는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가 됨. 곧 고구려의 始祖임*2.		제왕운기 주해: 「구산국사」 본기에서 인용.
		*1: 홀승골성은 중국 醫州의 경계에 있음 *2: 아래에 나타남		
東夫餘	[古記]	(1. 동부여의 건국설화) 북부여왕 해부루의 대신(相) 아란불의 꿈: 天帝가 하강하여 아란불에게 말하기를; 天帝의 차손으로 국가건국 계획 *1. 해부루는 동해의 바닷가 가섭원 (迦葉原)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 함. (2. 금와왕의 전설) 부루는 無子, 부루의 말(馬)이 '곤연'의 큰 돌 앞에서 눈물흘림; 큰 돌 아래에서 金蛙를 얻음. 왕위: (해부루)→금와金蛙→ 태자 태소. A.D.222년에 고구려왕 무휼(대무신왕)이 동부여 합병 *1: 동명왕이 일어날 조짐		
高句麗	[古記]	(1. 고구려의 건국)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 도읍인 졸본주는 요동 지역에 있음.	國史는 三國史 記임	
	國史 高句麗本紀	(2. (고)주몽의 탄생설화-1) 시조 東明聖禰성은 高씨, 이름은 朱蒙. 이전에 북부여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옮김, 부루 死後 金蛙가 왕위를 계승. 금와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얻음. 하백의 딸 유화가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웅신산 밑 압록강가의 집에서 관계함 그 부모가 유화를 우발수로 귀양보냄 *1. *1. 檀君記-1: 단군이 서하의 하백 딸과 관계하여 부루를 낳았다고 함. 이 기사에서는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통정하여 주몽을 낳음. *1 단군기-2: 단군기에서 "하들을 낳아 부루라 함". 고로 해부루와 고주몽은 배다른(異母) 형제. (3. 주몽의 탄생설화-2) 금와가 유화를 방에 가둠, 햇빛이 유화를 비추어 胎氣가 있음. 알을 낳음, 금와(왕)이 알을 들판에 버림. 어미에게 돌려줌, 알을 깨고 아이가 나옴. 일곱 살에 활과 살을 만들어 百發百中, 활을 잘 쏘기에 주몽이라 함. (이하 다음 <표 5>에 연결		

<표 5> 고구려의 전거 및 본문내용

條	전거	내용	전거 비고	내용 비고
高句麗	國史 高句麗本紀	(4. 주몽의 성장과정) 금와의 자식 饒代, 주몽보다 못함. 대소가 이를 염려, 왕은 주몽에게 馬 키우기 시킴, 말을 잘 키움. 여원 말을 주몽에게 줌. 왕의 아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시해하려 함. 주몽의 母가 아들을 피신시킴. (5. 고주몽(천제의 아들, 하백의 손자)의 고구려 건국) 주몽이 罽婁에 도착 →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서 강을 건넌(渡河). 졸본주에 도움을 정함. 국호를 '고구려'라 함. 국호를 따서 '高'씨로 姓을 삼음*1. 이때 고주몽의 나이(아 십이세 漢孝元帝建昭2年甲申(B.C.37)에 즉위, 왕이라 일컬음. 고구려 전성기, 21만5백8호. *1: 本姓은 '解'씨, 천제의 아들로써 햇빛을 받아 태어남으로 '高'씨라 함		
	珠璣傳 第21卷	(1. 졸본부여 동명성제(고주몽)의 또 다른 탄생설화) 동부여 영풍리왕(해부루왕)의 侍婢가 임신,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잉태, 낳은 아이를 돼지우리·마굿간에 버림, 말이 젖을 먹여 죽지 않음, 성장하여 (졸본)부여의 왕(동명제; 고주몽)이 됨*1. *1: 곧 '동명제'가 졸본부여의 왕이 된 것을 말함. 졸본부여는 북부여와 별도로 號曰으로 '부여왕'이라 함. 영풍리왕=해부루왕.	「주립전은 중국의 불교서적인 「法苑珠林」의 약칭임.	

‘동부여’로 지칭하는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구려조에서는 그 첫 번째 본문(문단)에 또한 전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가 졸본부여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이미 북부여 본문서술의 둘째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의 始祖인 東明聖帝 즉 고주몽이 ‘졸본주’에 도움을 정하고 북부여를 계승하여 ‘졸본부여’가 일어났으며, 이 졸본부여가 곧 고구려임을 고구려條의 첫 문단에서 중복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연이 고구려조의 첫머리에서 굳이 “古記”라고 그 전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부여조와 고구려조 첫 문단은 「古記」를 그 典據로 하여 논술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일연은 고구려조 본문의 두 번째 문단부터 다섯 개의 내용문단 모두를 “國史 高句麗本紀”를 전거로 내세우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第1’의 본문내용 중에서 東明聖帝 즉 고주몽의 탄생신화부터 그의 성장과

정 및 고구려의 건국년도(B.C.37년)까지의 내용을 轉載하고 있다.⁶⁰⁾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일연은 이 내용의 말미에 “고구려의 전성시기에는 그 戶數(인구)가 21만508戶였다(高麗全盛之日, 二十一萬五百八戶)”는 사실을 특별하게 附記하고 있다는 점이다.⁶¹⁾ 이 같은 사실은, ‘변한·백제 조의 말미 에도 “백제의 전성시대에는 戶數가 15만2,300호였다(百濟全盛之時, 十五萬二千三百戶)”⁶²⁾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진한’조에서도 “신라의 전성시대에 서울(東京: 慶州) 안의 호수가 17만8,936호였다(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⁶³⁾라고 반드시 그 戶數를 서술하고 있는 점을 注目할 수 있다. 즉,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서술되는 관련국가의 건국사항을 記述할 때에는 역사와 더불어 반드시 그 국가의 인구문제(戶數)를 또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사항에서 우리는, 일연이 「삼국유사」 기이편의 각 국가를 서술할 때, 그는 어느 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그 해당사항을 「삼국유사」의 본문으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여러 史書에서 해당 史料를 모두 섭렵한 뒤에 비로소 종합적으로 각 條의 본문을 記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과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삼국유사」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단언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다섯째, 일연은 고구려조 서술의 마지막 전거로 「珠琳傳」 卷21'을 내세우고, 「삼국사기」 본기에서 채록된 고주몽의 탄생신화와는 또 다른 탄생설화를 附記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립전」은 중국 唐나라 西明寺의 道世가 668년에 완성하였으며 100編 668部の 항목으로 분류한 일종의 불교백과사전인 「100卷本 「法苑珠林」」을 말한다. 지금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B.C.37년부터 B.C.25년 사이의 일이라 볼 수 있는 고구려 고주몽의 탄생신화와 중

6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1. (김부식, 고전연구실 옮김, 「新編 三國史記 上」 (서울: 신서원, 2000), 318-323.) 참조

61) 최남선(1983), 「삼국유사」, 41 쪽 참조

62) 상계서, 42쪽

63) 상계서, 同面.

국 7세기의 唐代 불교서인 「법원주립」은 그 성격이 서로 너무나 동떨어지게 判異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고주몽의 탄생설화와 관련하여 7세기 중국불교서인 「법원주립」의 내용 속에까지 철저한 검색을 시도하여 고구려의 건국시조와 관련한 탄생설화의 내용을 특별하게 발췌함으로써, 「삼국사기」의 내용을 補遺하고 있음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바로 위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고구려의 건국시조를 비롯하여 삼국 및 고조선·위만조선·마한의 건국과정 등에 대한 삼국유사의 역사서술을 위하여 얼마나 정열적으로 관련 史料들을 수집하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 결 론

이상의 본론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유사」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건국신화 등을 수록한 우리 민족의 上古史에 대한 最古의 史書로서 韓民族의 源流와 尤구성 및 主體성을 표방한 최초의 역사서이다. 건국신화가 없는 민족은 국가기원의 正體性 확립에도 중대한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一然은 기이편의 서문에서 고조선을 비롯한 삼국의 시조가 모두 神異한 건국신화를 가졌음을 강조함으로써 神話의 歷史化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삼국유사」 역사서술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일연은 기이편을 편성하면서 ‘天王·天子·東明聖帝·崩·殂落’ 등 황제와 관련한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연의 자주적이고 민족주체성의 자각의식 등을 도출하여 볼 수 있다.

둘째, 기이편을 비롯하여 「삼국유사」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최대의 특징은, 고조선條를 비롯한 각 조 본문의 첫머리에는 그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 채록한 典據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전거에서 채록된 내용을 「삼국유사」의 본문으로 記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이편 고조선조의 첫 번째 전거로 채택된 「魏書」에 대하여, 현재 사학계에서는 ‘이것이 中國正史 「三國志·魏志」의 계열로 보는 견해’와 魏滿朝鮮에 관한 국내의 역사서라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았다. 본고에서는 기이편 고조선조에서 ‘단군왕검의 건국년대는 堯임금과 同時’였다는 사항을 주목하고, 이에 고조선조 등 기이편의 수록내용과 中國24史 중에서 「史記」·「前漢書」·「後漢書」·「三國志·魏志」 등에서의 해당부분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때 고조선조의 전거문헌(魏書)과 위만조선의 국가명(魏滿朝鮮) 및 위만의 인명(魏滿) 모두와, 마한조에 제시된 전거(魏志)와 위만조선에 대한 국가명(魏滿朝鮮) 그 전체를 모두 오자(誤字)로 잘못 記入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또한 일연은 마한조에서 이른바 「삼국지·위지」에서 관련사항을 채록하고 그 전거를 내세울 때에는 분명 “魏志”라고 表記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일연이 기이편 고조선조에서 전거로 채택한 「위서」와 마한조에서 그 전거로 채택된 「위지」는 분명 서로 다른 전거 즉 서명(書名)임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일연이 고조선조에서 전거로 채택한 「위서」는 중국의 「삼국지·위지」 계열의 中國史書가 아님과 동시에 위만조선의 역사서인 「위서」일 것이라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연이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조에서 전거로 채택한 「위서」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당시까지 전해진 위만조선에 관한 우리 국내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더욱 큼을 규명하였다.

넷째, 일연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두 번째로 채택한 「古記」의 전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와 홍익인간의 이념 및 단군조선의 역사적인 사실을 史書에 최초로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삼국유사」 기이편의 중요한 위상을 주목하였다.

다섯째, 일연은 고조선조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魏書」·「古記」를 비롯하여 「배구전」·「통전」을 그 전거로 하여 차례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上古史의 변천 즉 ‘고조선 → 위만조선 → 고구려’로 계승되는 역사서술을 정립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고조선의 정통을 계승하였음을 증명하는 쟁거를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위만조선조에서 일연은 「前漢書·朝鮮傳」을 그 전거로 채택하고 여기에 顏師古와 李奇 등 「漢書」주해(주석)자들의 견해를 細註에서 인용하면서, 위만조선의 건국에서부터 그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위만조선의 역사를 우리의 상고사 중에서 굳건하게 정립하였다는 데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일곱째, 일연은 「삼국유사」 마한조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1) 「魏志」·2) 甄萱上太祖書·3) 崔致遠云·4) 「周禮·職方氏」·5) 「三國史(記)」·6) 「淮南子注」·7) 「論語正義」·8) 「海東安弘記」 등 다양한 전거문헌들을 채택함으로써 마한을 고조선의 지역 이동적인 연계선상에서 마한의 正體를 파악함과 동시에, 고구려 건국의 연원은 바로 마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결국 고구려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조선에 연계시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여덟째, 일연은 「삼국유사」 북부여·동부여 條에서 북부여의 전거로 「古記」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부여조와 고구려조 첫문단의 본문내용에 관한 전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부여조와 고구려조는 결국 북부여조 본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연이 굳이 그 전거를 중복하여 기입하지 않았던 것임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일연은 고구려조 본문 두 번째 문단부터 다섯 개의 내용 문단 모두를 「國史」高句麗本紀를 전거로 하여,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第1' 중 東明聖帝(고주몽)의 탄생신화(설화)부터 그의 성장과정 및 고구려의 건국년도(B.C.37년)까지의 내용을 轉載하면서, 「삼국사기」의 해당부분에서 언급이 없는 '고구려 전성시기의 戶數(인구)를 특별하게 附註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점에서 우리는, 일연이 「삼국유사」 기이편의 각 국가를 서술할 때에 특정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그 해당사항을 삼국유사의 본문으로 轉載한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여러 史書에서 해당 史料를 모두 섭렵한 뒤에 비로소 종합적으로 각 條의 본문을 記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홉째, 일연은 「삼국유사」 고구려조의 마지막 전거로 중국 7세기의 「법원주

립」을 채록하여 고주몽의 또 다른 탄생설화를 補遺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일연이 삼국사를 비롯하여 고조선·위만조선·마한조 등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 그 史料의 발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던가를 파악하게 한다.

요컨대, 「삼국유사」 기이편에서는, 「魏書」를 비롯한 다양하면서도 심도있는 사료들을 발굴하여 그 典據로 채록·제시됨으로써 우리민족의 국가기원과 관련한 神話를 歷史化하였으며, 그 神異스러운 건국신화에서 비롯된 '고조선 → 위만조선 → 마한 → 고구려'로 이어지는 유구한 민족사의 전통에 입각한 正體性을 확립하였다는데 그 위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삼국유사」 기이편의 내용을 간과 또는 외면하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편입시키며 <東北工程>을 구축하는 중국측 학계에 대하여 그 學者的 良心이 회복되기를 촉구한다.

<참고문헌>

-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漢書」. 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第65.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三國志」. 卷三十,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 3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1.
「三國遺事」. 紀異篇
- 김두진. “檀君古記의 이해 방향.” 「韓國 古代의 건국신화와 祭儀」. 서울 : 일조각, 1999.
- 김병룡. “단군의 건국사실을 전한 「위서」에 대하여.” 「단군을 찾아서」 서울 : 살림터, 1994.
- 金成煥.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서울: 景仁文化社, 2002.
-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리상호. “단군설화의 역사성(상).” 「력사과학」 1962-3. : 서영대 편. 『북한학계

- 의 단군신화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1995. 18-24.
- 리지린. 「고조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4.
- 朴大天. “「三國遺事」古朝鮮條 引用「魏書」論.” 『韓國史研究』,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1. 1-31.
- 박진태 등.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서울: 박이정, 2002.
- 손영중. “고조선 3왕조의 시기구분에 대하여.” 『단군과 단군조선』, 서울: 살림터, 1999.
- 申采浩 著. 이만열 주석. 「註釋 朝鮮上古文化史」,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윤내현. 「고조선 연구」, 서울: 一志社, 1994.
- 尹 順. “「三國遺事」의 桓雄과 炎帝神農의 기록학적 비교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2호(2001. 9). 57-80.
- 이강래. “삼국유사 인용 「고기」의 성격.” 『三國史記典據論』, 서울: 민족사, 1996.
- 李鳳麟. “三國遺事의 象徴性 研究” 『三國遺事研究 上』,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177-198.
- 李載浩. “三國遺事に 나타난 民族自主意識 - 특히 그 體裁와 義例에 대하여 -.” 『三國遺事研究 上』,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1-10.
- 李丙燾 譯註. 「譯註 三國遺事 并原文」, 서울: 廣曹出版社, 1977.
- 이형구. 「단군을 찾아서」, 서울: 살림터, 1994.
- 이형구. 「단군과 단군조선」, 서울: 살림터, 1999.
- 정구복.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정구복. “高麗 初期의 「三國史」 編纂에 대한 一考.” 『國史館論叢』,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3.
- 丁仲煥. “三國遺事 奇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대하여.” 『大邱史學』(대구사학회), 제12·13합집(1977).
- 최남선. 「삼국유사」, 서울: 瑞文文化社, 1983.
- 하정용. “「삼국유사」所引「古記」考.” 『書誌學報』 제23집(1999). 33-54.
- 현명호. “고조선의 성립과 수도 문제에 대하여.” 『단군과 단군조선』, 서울: 살림터, 1995. 88-89.